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들

에스라 ① 성전재건 시작/중단

1-2장 고레스칙령과 포로귀환

3-5:1 성전재건 시작과 중단

학개 성전재건 촉구/회복 약속

1:1-15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2:1-9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것

2:10-19 너희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

2:20-23 회복 약속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책에 따라 1년 정도 연대 차이 있음

고레스 559-530(주전)

고레스 칙령 (538)

1차 귀환 세스바살 (536)

성전재건 시작

캄비세스 530-522

다리오 (다리우스1) 522-486

성전재건 중단(16년간)

학개/스가랴 활동(재건 재개촉구)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재건 재개(520, 다리오2년)

성전재건 완성(515, 다리오6년)

아하수에로(크세로크세스)

486 -465 **에스더**, 모르드개

아닥사스다1(룽기마누스)

2차 귀환, 에스라(458) **영적개혁**

3차 귀환, 느헤미야(445) **성벽재건**

참고도서

두란노 How 주석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

(Lesen und Verstehen, 헤르만 만케)

바벨론은 유다 상류층과 유력인, 인재들을 중심으로
3차에 걸쳐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렘 52:28-30).

바벨론에서의 삶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지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자치권을 가질 수 있었고, 상업, 종교 활동도 가능했습니다.

가옥을 건립하고 농사를 짓는 일, 부의 축척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생활조건이 아니라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든 신앙의 붕괴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패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과 뜻 안에 있는 일입니다.

강대한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지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분명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이스라엘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영화는 오래지 않았습니다(주전 604-562).

바벨론을 이어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 제국은

넓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관용정책을 폈습니다.

고레스왕은 '포로'였던 이들에게 귀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538년, 대하36:22-23, 스1:1-6, 6:1-5, 사44:27-28, 45:1)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에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태생도 다수였고, 재산도 꽤 소유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바벨론, 이집트, 주변 국가에 잔류 공동체가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2차, 3차에 걸친 귀환 행렬은 계속 되었습니다.

(스2:64, 느7:66).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귀환한 사람들이

세워가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에스더서는 타국에 잔류하던

유대인 공동체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이상과 고향의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조상들의 가옥과 토지는 남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날씨와 흉작이 계속되어 생계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페르시아의 후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대의보다 이익에 민감해졌습니다. 부정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경제적 궁핍과 사마리아인들의 횡방, 눈앞의 현안들로 인해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다리오 2년까지).

바벨론에서는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신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오히려 철저한 회개와 성별의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신앙인의 생존법을 터득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견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신앙은 ‘고향’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전건축도, 신앙도, 그들의 일상도, 모두 엉망인 상태였습니다(1:9-11).

이 때 선지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520년).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중단되었던 성전건축을 재개하는 일이었습니다(1:7-8).
이는 단지 건물을 완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원칙이 개인과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개인과 공동체에 창조 순리가 회복됩니다.
영적인 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다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 사람다운 삶이 회복됩니다. 공홀과 자비, 공의와 정의가 회복됩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지 23일 만에 건축을 재개합니다(1:15).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회복의 건설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내 삶과 가정, 나라와 신앙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가자! "
(메시지성경 스가랴 8:20-21)